

## II. 발해의 변천

1. 발해의 융성
2. 발해의 쇠퇴와 멸망
3. 발해유민의 부흥운동

## II. 발해의 변천

### 1. 발해의 융성

#### 1) 내분의 발생

발해는 제2대 武王(大武藝)과 3대 文王(大欽茂)을 거치면서 발전기를 맞이하였으나, 793년에 문왕이 사망하면서 내분이 발생하여 818년에 10대 宣王(大仁秀)이 즉위할 때까지 25년 동안 정치적 불안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선 4대 大元義로부터 9대 簡王(大明忠)에 이르는 6명의 왕이 재위하였던 기간이 아주 짧았던 데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좀더 구체적인 면은 다음의 사실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왕이 사망한 뒤에 그의 직계 자손이 아니고 族弟였던 4대 대원의가 즉위하였으나(793),<sup>1)</sup> 그마저 몇 개월 만에 귀족들에게 피살되었다. 그 다음에는 문왕의 손자인 大華璵에게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대원의의 즉위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고, 모종의 정권쟁탈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암시한다.<sup>2)</sup> 이러한 정권쟁탈의 가능성은 795년에 康王(大嵩璘)이 일본에 보낸 國書에서도 드러난다. 문왕이 사망한 사실을 2년이 지나서야 알리면서도 이 때까지 미처 諡號를 정하지 못하고 단지 ‘祖大行大王’이라 부르고 있어서 이 동안에 내부 사정이 복잡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sup>3)</sup>

대원의를 이어서 794년 5대 成王(대화여)이 즉위한 뒤에 東京에서 上京으

1) 이 때에 왕위를 이을 大宏臨이 일찍 사망하였지만, 왕위를 계승할 만한 인물로서 대평림의 아들인 大華璵나 문왕의 다른 아들인 大嵩璘·大英俊·大貞翰 등이 있었다.

2) 方學鳳, 〈발해 대원의가 피살된 사회적 배경과 그 성격에 대한 연구〉(《발해사 연구》, 정음사, 1989), 121~122쪽.

3) 《日本逸史》 권 5, 桓武天皇 延暦 15년 4월 무자.

로 천도하고 그의 年號처럼 中興을 이루려 하였지만 곧 사망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문왕의 작은 아들인 6대 강왕(794~809)이 즉위해서는 비교적 오랜 기간인 15년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가 즉위하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다. 즉위초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구차히 延命하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 뒤로는 신하들이 “의로움에 감복하여 뜻을 바꾸고 감정을 억제하니,” 마침내 “조정의 기강이 옛날과 같이 되었고, 영토도 처음과 같이 되었다”고 하였다.<sup>4)</sup> 이로 보아서 그는 내분의 틈바구니에서 겨우 왕위에 올랐으며, 그 뒤로는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힘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시호가 강왕이었던 것도 이러한 업적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 때에 사회가 안정되자 당나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문왕 다음으로 많은 冊封을 받을 수 있었다.<sup>5)</sup> 그러나 여러 차례의 요청 끝에 일본으로부터 아무 때나 사신을 파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놓고서도 그 후로 10년 가까이 사신을 파견하지 못하였던 사실에서 당시의 안정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7대 定王(大元璿; 809~812)도 통치기간이 짧아서 별다른 치적을 남기지 못하였고, 이어서 8대 僖王(大言義; 812~818)이 즉위하였지만 그의 즉위도 순탄하지는 못하였다.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王孝廉이 815년 정월에 일본 조정의 추궁에 대해서 “세월이 흐르고 임금도 바뀌어 전번의 일을 알 수가 없다”<sup>6)</sup>고 대답하였는데, 비록 정왕대의 일이지는 하지만 불과 3년 전에 일어난 일을 두고 이렇게 대답한 것은 앞 시대와의 단절성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회왕이 즉위하는 데에도 모종의 커다란 변동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가 사망하고 818년 9대 簡王(大明忠)이 즉위해서도 연호를 太始라 하여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였지만, 그도 곧 사망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6대의 왕을 거치면서 내분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리멸렬함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기간에 특기할 만한 것은 강왕 대승린대에 고구려

4) 위와 같음.

5) 《舊唐書》권 199 下, 列傳 149 下, 北狄 渤海靺鞨.

《唐會要》권 96, 渤海.

《冊府元龜》권 965, 外臣部, 封冊 3.

6) 《日本後紀》권 24, 嵯峨天皇 弘仁 6년 정월 갑오.

계승의식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798년에 일본에서 발해에 보낸 국서에서 “과거에 고구려가 계속해서 일본을 방문하였고, 大氏 왕실이 나라를 다시 열어서 역시 끊임없이 일본을 방문하였다”<sup>7)</sup>고 하였는데, 특히 “대씨가 나라를 다시 열었다”는 말은 일본이 발해를 고구려 부흥국가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菅野道眞 등이 797년에 《續日本紀》를 완성하고 바친 上表文에서도 발해라는 바다의 북쪽에 貊種, 즉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sup>8)</sup> 그 시기로 보아서 이 사람들은 발해인을 지칭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아울러 798년에 발해 사신인 大昌泰 일행이 가져간 국서에서도 “교화를 따르는 부지런한 마음은 高氏에게서 그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sup>9)</sup>고 하여 발해 스스로도 고구려 계승의식을 밝히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러한 고구려 계승의식은 이미 건국기에서부터 멸망기까지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어서, 발해사가 한국사에 포함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 2) 해동성국의 구현

10대 宣王(大仁秀; 818~830)은 9대 간왕의 從父이면서 大祚榮의 동생 大野勃의 4世孫이었다. 이전까지는 대조영의 직계손으로 왕위가 이어지다가 이때부터 그의 동생인 대야발의 후손으로 바뀐 것이다. 이 사실은 단순히 王系の 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왕계가 바뀌면서 동시에 사회 분위기도 일신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연호가 建興이었음은 그가 앞에서 이루지 못한 중흥을 재차 시도하였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시호가 선왕인 것은 그가 평소에 善政을 베풀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그의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내분이 수습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에는 정복활동도 활발히 벌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두 가지 기록에서 확인된다.

7) 《日本逸史》권 7, 桓武天皇 延暦 17년 5월 무술.

8) 《日本後紀》권 5, 桓武天皇 延暦 16년 2월 기사.

9) 《日本逸史》권 7, 桓武天皇 延暦 17년 12월 임인.

① 大仁秀가 바다 북쪽의 여러 부락을 토벌하여 큰 영토를 얻는 데에 공이 있었다(《新唐書》권 219, 列傳 144, 北狄 渤海).

② 興遼縣은 본래 漢나라 平郭縣이 있던 곳으로서, 발해 때에 長寧縣으로 고쳤다. 唐나라 元和 연간(806~820)에 발해 왕 대인수가 남쪽으로 신라를 평정하고 북쪽으로 여러 부락을 공략하여 郡과 邑을 설치함에 따라 지금의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遼史》권 38, 志 8, 地理 2, 東京道).

두 기록에서 바다 북쪽을 공략하였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바다는 당시에 湄沱湖라 불리던 호수로서 오늘날의 興凱湖를 가리킨다. 따라서 미타호 일대에 거주하던 越喜靺鞨을 비롯한 여러 말갈부락이 정복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에 월희말갈 지역을 정복하여 懷遠府와 安遠府를 설치하였다.<sup>10)</sup> 그러나 그보다 북쪽의 黑龍江(아무르강)가에 살던 黑水靺鞨은 마지막까지 완전히 복속시키지 못하였다.

②의 자료에서는 정복활동이 남쪽 방면인 요동지방과 한반도 서북부쪽으로도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遼나라의 東京 遼陽府(지금의 遼陽)에 속하였던 興遼縣은 원래 발해 선왕이 공략하여 長寧縣을 두었던 곳이라고 한다. 공략 시기는 그의 즉위 연대와 함께 고려하면 선왕의 즉위 초년인 818년에서 820년 사이가 된다. 사실 발해는 8세기 중반 문왕 때에 이미 요동방면으로 진출하여 木底州와 玄菟州 등을 차지한 적이 있는데, 이 때에 와서 재차 요동으로 진출하여 요양일대까지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1)</sup>

그뿐만 아니라 그는 신라방면으로도 진출하였다. 위의 자료에서 신라를 평정하였다는 것은 발해가 大同江 이북 지역으로 뻗어 내려간 것을 가리키는 듯하다.<sup>12)</sup> 신라는 이에 대응하여 憲德王 18년(826) 7월에 대동강에 300리

10) 같은 지역에 있던 拂涅·鐵利·虞婁 등의 부락도 이 때에 완전히 장악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挹婁(虞婁)의 옛 땅에 둔 定理府와 安邊府도 이 무렵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陳顯昌, 〈論渤海國의疆域〉, 《學習與探索》 1985-2, 131쪽 및 朱國忱·魏國忠, 《渤海史稿》, 黑龍江文物出版社, 1984, 71~74쪽).

11) 金毓黻 이래 발해가 요동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나 사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타당성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魏國忠, 〈渤海王國據有遼東考〉(《龍江史苑》 1985-1) 참조.

12) 宋基豪, 〈東아시아 國際關係 속의 渤海와 新羅〉(《韓國史 市民講座》 5, 一潮閣, 1989), 54쪽.

나 되는 장성을 쌓았다.<sup>13)</sup>

이상과 같이 발해의 대외 정복활동은 선왕 때에 거의 마무리되었다. 그 결과 사방의 경계가 이 무렵에 완성되었고, 《新唐書》 발해전에 보이는 5京・15府・62州의 행정구역도 완비되었다. ②의 자료에서 “郡과 邑을 설치하였다”고 한 것은 군이나 읍이라는 구체적인 행정구역을 가리키기보다는 이러한 행정구역의 설치 사실을 막연히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때에 이르러 대동강과 泥河(지금의 龍興江)를 경계로 신라와 국경선을 맞대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선왕의 시대는 역시 중흥기였다.

내부적인 안정에 따라 대외관계도 아주 적극적이었다. 그가 재위한 12년 동안 일본에 5번이나 사신을 파견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빈번하였고, 그 성격도 더욱더 상업성을 띠게 되었다. 이 무렵에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것과는 대조가 된다. 825년 12월에 도착한 발해 사신에 대해서 藤原緒嗣가 表를 올려 이들이 “사실은 상인 집단일 뿐이지 이웃 나라 손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맞아들여 나라에 손해를 끼칠 수 없다”고 한 말은 유명한 것이다.<sup>14)</sup> 이렇게 자주 일본에서 교역하고자 하였던 것은 사회 발전에 따라 발해 지배층의 욕구가 그만큼 커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선왕의 중흥 노력에 힘입어 그 다음에 즉위한 11대 왕 大彝震(831~857)으로부터 12대 왕 大虔晃(857~871), 13대 왕 大玄錫(871~894?)에 이르기까지 크게 융성하여 마침내 중국으로부터 「海東盛國」이란 영예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 선왕 때에 대외정복이 완결됨에 따라 그 이후의 왕들은 주로 文治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이것은 8세기에 무왕의 대외정복에 이어서 문왕이 문치에 힘썼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융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료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9세기가 전성기에 해당되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관한 사료는 8세기 때보다도 더 적은 형편이다. 이것은 당나라가 혼란에 빠져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못하였고,<sup>15)</sup> 일본과 오고간 國書도 극히 실무적이고 의례적인 내용만

13) 《三國史記》 권 10, 新羅本紀 10, 헌덕왕 18년 7월.

14) 《日本逸史》 권 34, 淳和天皇 天長 3년 3월 무진.

15) 《冊府元龜》의 경우를 예로 들면, 발해 기록이 846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담고 있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만,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당시에 융성했던 모습을 추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대이진 초기나 혹은 그 직전에 官制가 크게 확충되었다는 사실이다. 당나라 사신 王宗禹가 832년 12월에 발해로부터 귀국한 뒤에 左右神策軍과 左右三軍, 120司를 설치하였던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였다.<sup>16)</sup> 좌우신책군은 당나라 代宗 때에 두었던 禁軍을 이른다.<sup>17)</sup> 따라서 발해에서 이를 본받아서 좌우신책군을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해는 咸和 2년(832)으로서 대이진 초기에 해당한다.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신당서》 발해전의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믿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1960년 4월에 上京城에서 발견된 銅印에 새겨진 ‘天門軍’이<sup>18)</sup> 이러한 제도 개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함화 4년에 조성된 碑像에 보이는 許王府라는 관부와 그에 속한 參軍·騎都尉라는 관직도<sup>19)</sup> 역시 이와 관련하여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신당서》 발해전에 보이지 않는다. 이로 보건대 대이진 초기나 혹은 그 이전에 관제가 크게 확충되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둘째는 발해인들의 賓貢科 급제 사실이다.<sup>20)</sup> 발해는 초기부터 당나라에 학생을 자주 파견하여 중국의 문물을 배워오게 함으로써 해동성국의 기틀을 마련하였다.<sup>21)</sup> 당나라가 9세기 전반에 외국 학생들을 위하여 빈공과를 설치하자, 발해 학생들은 840년대 후반부터 이 과거시험에 급제하기 시작하였

가 907년에 다시 등장하고 있어서, 武宗이 사망한 뒤로부터 멸망까지 60년 이상이 공백으로 남아 있다.

16) 《舊唐書》권 17 下, 本紀 17 下, 文宗 太和 6년 12월.

17) 《文獻通考》권 151, 兵考 3.

18)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486~487쪽.

19)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위의 책, 467~470쪽.

宋基豪·全虎兌, 〈咸和四年銘 발해 碑像 검토〉(《西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亞細亞文化社, 1992).

20) 宋基豪, 〈唐 賓貢科에 급제한 渤海人〉(《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一潮閣, 1994).

21) 《新唐書》권 219, 列傳 144, 北狄 渤海.

다.<sup>22)</sup> 이 때는 발해로 치면 대이진 중반경에 해당된다. 이로부터 여러 명의 급제자를 배출하였으니, 그 가운데에는 이름과 급제 연도가 알려진 인물이 세 사람 있다. 872년에 급제한 烏昭度,<sup>23)</sup> 892년에 급제한 高元固,<sup>24)</sup> 906년에 급제한 烏光贊<sup>25)</sup>이 이들로서, 오소도와 오광찬은 부자지간이다. 전체 급제자는 10명에 가까울 것으로 여겨지는데,<sup>26)</sup> 80명에 달하였던 신라에 비한다면 아주 뒤지는 것이지만, 빈공과에 참여한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는 두번째로 많다. 따라서 이러한 급제 사실을 통해서도 대이진 이후 문화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는 일본에 파견되던 사신단에 일정한 격식이 마련되어 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사신의 조건에 관한 문제이다. 발해 초기에 武官이 파견되다가 8세기 중반에 文官으로 바뀌었고, 9세기에 들어오면서 문관 가운데에서도 문학적 소양이 있는 文人들이 다수 파견되었다. 이러한 문인들에는 副使 楊泰師(758년 파견), 大使 王孝廉과 부사 高景秀 및 錄事 釋仁貞(이상 814), 부사 周元伯(858), 대사 楊成規와 부사 李興晟(871), 대사 裴頌(882), 대사 배정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부사(894), 대사 裴璆(907·919·929)가 있다. 이 가운데에서 양태사와 왕효렴 일행을 제외하면 모두 9세기 중반 이후가 된다. 이러한 사실은 발해사회의 질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무관에서 문관으로 변모한 것은 사신 파견의 목적이 정치적인 데에서 경제적인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지만, 문인을 파견한 것은 경제적인 목적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것은 9세기에 들어와 귀족들의 문학적 소양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발해사회의 문화적 기반이 더욱 확충되었음을 반영한다. 당나라 溫庭筠으로부터 발해가 “문물제도에서 한 집안을 이루었다”<sup>27)</sup>고 평가를 받은 것이나, 당 조정으로부터 “의로움을 아는

22) 《孤雲集》 권 1, 與禮部裴尙書瓚狀.

23) 《孤雲集》 권 1, 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湘狀 및 與禮部裴尙書瓚狀.  
《高麗史》 권 92, 列傳 5, 崔彥攝.

24) 《全唐詩》 11函 1冊, 徐夔.

25) 《高麗史》 권 92, 列傳 5, 崔彥攝.

26) 崔 澹, 《拙菴千百》 권 2, 送奉使李中父還朝序.

27) 《全唐詩》 9函 5冊, 送渤海王子歸本國.



것이 華夏와 동일하다”<sup>28)</sup>고 칭찬을 받은 것은 ‘해동의 융성한 나라’라는 영예의 칭호를 얻은 것과 더불어 이러한 문화적 성숙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大使의 소속 관청과 관직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8세기에는 武職으로서 10衛에 속하는 郎將, 左熊衛 都將(낭장)이 있고, 지방관으로서 若忽州都督, 行木底州刺史, 玄菟州자사가 있으며, 중앙관으로서 政堂省左允, 司賓寺少令이 있어서 사신의 소속 관청과 관직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왕 때부터는 소속 관청이 중앙의 政堂省과 文籍院으로 좁혀지고 있고, 관직도 정당좌윤과 문적원少監으로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선왕대에 들어서 발해 내부에서 각 관청과 관직의 역할과 기능이 고정되어 갔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당서》 발해전에 기재된 관직체계와 같은 틀이 완성된 것은 적어도 선왕대에 와서야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발해에서 일본에 파견된 사신의 숫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시 8세기에는 최저 23명에서 최고 325명까지 들쭉날쭉하여 고르지 않다. 그러나 선왕 때부터는 100명 정도로 고른 분포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11대 大彝震이나 13대 大玄錫 시기부터는 105명으로 고정되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사신의 파견 연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으나, 사신단의 규모에 대해서는 별로 규제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렇게 사신 숫자가 고정되어 간 것은 발해 자체의 규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中臺省牒의 휴대문제이다. 발해에서 중대성첩을 처음으로 보낸 것은 759년이다. 그러나 이 때 王書는 가져가지 않고 口頭로만 보고하였으며, 문서로는 첩만 가져갔다. 따라서 왕서와 첩을 함께 지참하기 시작한 것은 9세기에 들어서이다. 이러한 방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전해지는 자료만을 토대로 한다면 대이진 시기인 840년대부터가 된다.

이상으로 일본에 파견되는 사신단에 대한 틀이 일정하게 마련되어 갔던 점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선왕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대이진이나 대

28) 《全唐文》 권 647, 元稹, 青州道渤海愼能至王姪大公則等授金吾將軍放還蕃制.

현석 시기에 완성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이 자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해 관제, 나아가 발해사회 전체의 고정 격식이 이 시기에 와서 완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爭長事件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崔致遠의 글이 있다.

신 某는 아뢰니다. 신이 저희 나라의 宿衛院 狀報를 보니, 지난 乾寧 4년(897) 7월에 賀正使로 왔던 발해 왕자 大封裔가 狀을 올려 발해가 신라보다 위자리에 앉기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처리한 勅旨를 보건대, ‘國名의 先後는 본래 強弱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니 朝制의 순서를 지금 어찌 盛衰를 근거로 바꿀 수 있겠는가. 마땅히 과거의 관례에 따를 것이니 이에 두루 알리노라’고 하였습니다(《孤雲集》 권 1, 謝不許北國居上表).

이 내용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당나라는 발해의 국력이 신라보다 앞섰음을 인정하고 있었다.<sup>29)</sup> 이를 가리켜 安鼎福도 “발해가 스스로 강대국을 자처하였다”<sup>30)</sup>고 지적하였다. 이 때 신라는 孝恭王 원년으로서 後三國으로 분열되던 시기였고, 반면에 발해는 14대 大璋階가 왕으로 있으면서 9세기에 이룩하였던 융성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발해 왕자 대봉예는 자신있게 당나라에 서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8세기말부터 9세기말까지의 발해사회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문왕이 사망한 793년부터 선왕이 즉위한 818년까지 25년간은 정권쟁탈을 둘러싼 內紛의 시기였다. 그리고 선왕이 즉위하여 내분을 수습하고 중흥을 이룩함으로써, 그 이후 13대 왕 대현석에 이르기까지는 크게 발전하여 전성을 구가하던 隆盛의 시기였다. 이 때에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융성은 14대 왕 대위해 시기까지도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마지막 왕인 大諱諤이 즉위할 무렵부터 내외의 혼란에 빠져 멸망의 시기에 접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29) 浜田耕策, 〈唐朝における渤海と新羅の爭長事件〉(《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下, 吉川弘文館, 1978), 349쪽.

30) 安鼎福, 《東史綱目》 권 5 下, 정사년 7월.

## 3) 발해국의 위상

발해는 기본적으로 당나라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었던 왕조였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되듯이 발해가 독립국이 아니고 단순히 당나라의 일개 지방정권에 불과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발해인들이 당나라 貢貢料에 급제하였던 사실은 이들이 당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취급되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비록 발해는 대외적으로 당나라의 藩國에 속하였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왕국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지만, 일부에서 皇帝國의 면모를 유지하였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이미 발해 초기부터 나타났다. 武王 때에 仁安이란 연호를 사용한 이래로 거의 전 기간에 걸쳐 독자적으로 연호를 사용하였는데,<sup>31)</sup> 원칙적으로 황제만이 연호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 이러한 사실은 대외적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표방하고 내부적으로 왕권의 절대성을 추구하였던 점과 연관되어 있다.

문왕 시기에 만들어진 貞惠公主묘지(780)와 貞孝公主묘지에는 두 공주의 아버지인 문왕을 大王, 聖人 등으로 부르면서 ‘皇上’이란 표현까지 쓰고 있다.<sup>32)</sup> 황상이란 말은 신하가 황제를 부를 때에 사용했던 것이므로, 발해에서 황제 칭호가 일부 사용되었음을 증명해 준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스스로 天孫임을 자처하고 일본에 대해서 舅甥關係를 요구하였던 점도 역시 주목된다.<sup>33)</sup>

무왕과 문왕 때의 이러한 自尊意識은 9세기에 들어서도 역시 이어지고 있다. 일본 大原美術館에 소장되어 있는 발해 碑像은 咸和 4년(834)에 조성된 것인데, 그 명문에 許王府가 보인다. 趙文休가 허왕부에서 參軍·騎都尉를 역임한 것이다. 다른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관청과 관직은 발해에 설치

31) 《新唐書》권 219, 列傳 144, 北狄 渤海.

32) 宋基豪, 〈발해 文王대의 개혁과 사회변동〉(《韓國古代史研究》 6, 1993), 59~61쪽.

33) 《續日本紀》권 32, 光仁天皇 寶龜 3년 2월 기묘.

宋基豪, 위의 글, 57~59쪽.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허왕부는 許王으로 봉해진 인물이 존재해야만 하고, 그렇다면 이를 임명하였던 인물은 허왕보다 한 차원 높은 황제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발해는 당나라 황제의 지배체제인 3省 6部の 제도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였다. 그리고 3성 가운데에 宣詔省이 있고, 中臺省 아래에는 詔誥舍人이라는 관직이 있는데, 이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詔라는 것은 원래 황제의 명령을 가리키고, 敎는 왕의 명령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발해 왕의 명령을 황제의 명령과 같은 조로 부르기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신라에 宣敎省이 설치되어 있던 점과 대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해는 내부적으로 황제국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 황제를 칭하기 위해서는 그의 교화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藩國의 상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발해는 주변의 靺鞨族을 번국으로 상정하였다. 무왕이 727년에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자신이 주변의 “列國을 주관하고 여러 번국을 아울렀다”<sup>34)</sup>고 함으로써 이 때에 번국을 상정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貞元 14년(798)에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茹富仇의 관직이 虞侯婁蕃長都督이었던 사실<sup>35)</sup>은 발해가 동북쪽에 있던 虞婁部를 번국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 준다. 역시 정원 8년에 사신으로 갔던 楊吉福이 押靺鞨使였던 사실<sup>36)</sup>도 말갈족에 대한 발해의 우월한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 지방관과 백성 사이에서 발해의 지방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던 반독립적인 지배자들을 首領이라 부른 것도 이들을 藩長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암시해준다.

이상의 사실로 보건대 발해는 대외적으로 당나라의 번국에 속하였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황제국의 질서도 일부 갖추고 있었던 二重的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체제는 高麗에 이르러 더욱 다듬어진 형태로 나타날 수 있었다.

〈宋基豪〉

34) 《續日本紀》권 10, 聖武天皇 神龜 5년 정월 갑인.

35) 《冊府元龜》권 976, 外臣部, 褒異 3, 德宗 貞元 14년 11월 무신.

36) 《唐會要》권 96, 渤海.

## 2. 발해의 쇠퇴와 멸망

### 1) 멸망의 배경

발해의 마지막 왕인 大諲譔이 통치하던 시기(906?~926)에는 동아시아 각국의 정세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後三國으로 분열되어 신라·태봉·후백제가 세력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당나라도 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건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중앙은 이미 지방세력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와해되어 갔고 지방에서는 藩鎮勢力들이 발호하여 각 지역을 점거하고 있었다. 河南지역의 宣武節度使 朱全忠(朱溫; 852~912), 山西지역의 河東節度使 李克用(856~908)이 이들을 대표하는 세력이었다. 907년 주전충이 당 哀帝를 폐위시키고 後梁(907~923)을 세워 국도를 開封에 둠에 따라 당나라가 멸망하고 5代 10國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극용의 아들 李存勖(885~926)이 후량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고 나서 魏州에서 923년에 後唐(923~936)을 세웠다.

이렇게 10세기 초반은 한반도와 중원지방이 여러 세력의 할거와 이들의 세력 경쟁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환경은 契丹이 발흥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여 주었다. 현재의 西拉木倫河(潢河)와 老哈河(土河) 일대에 거주하던 거란 부족들이 10세기초에 耶律阿保機(872~926)의 영도 아래 장족의 발전을 하면서 동아시아의 강자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발해의 존망은 서쪽에서부터 진출해오던 거란 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비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발해 말기에 거란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10세기초부터이다. 제일 먼저 보이는 사료는 거란의 왕실 인물인 耶律轄底가 발해로 도망한 사건이다.<sup>1)</sup> 그는 함께 국정을 담당하던 耶律釋魯가 죽임을 당하자 자신도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두 아들을 이끌고 발해로 도망하였고, 얼마 뒤에 다시 발해의 말을 훔쳐 거란으로 되돌아갔다. 이 때는 야율

1) 《遼史》 권 112, 列傳 42, 逆臣 上, 耶律轄底 및 권 64, 表 2, 皇子表.

아보기가 집권하기 이전인 901년에서 906년 사이가 된다. 이 사건은 양국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야율할저가 신변에 위협을 느껴 발해로 도망한 것으로 보아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906년에 可汗 痕德堇이 사망하자 이듬해 정월에 야율아보기가 그의 지위를 계승하였고, 마침내 거란부락을 통일하여 916년에 황제의 지위에 올랐다. 이를 전후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변 세력들에 대한 대규모 정복활동을 단행하였다. 북방민족이 흥기하면 으레 그러하듯이 거란도 궁극적으로 중원지방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그는 901년에 중원을 공략한 데 이어서 황제의 지위에 오른 뒤인 916년 8월에서 11월 사이, 그리고 921년 10월과 11월에 중원의 여러 성을 공략하고 많은 漢人들을 사로잡아 거란 영토로 옮겼다.

그러나 중원은 쉽게 점령될 곳이 아니었다. 총력을 다하여 중원을 공격하여야만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배후세력을 제거하여야만 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이 발해였다.<sup>2)</sup> 따라서 발해를 먼저 공략하고자 하였으나, 발해로 향하게 되면 또 서쪽 세력이 염려가 되었다.<sup>3)</sup> 따라서 중원을 치기 위해서 동쪽의 발해를 먼저 제거해야 되었고, 또 이를 위해서는 서쪽 세력을 먼저 제거해야만 하였다. 이리하여 그의 경략은 서방 정벌, 동방 정벌, 중원 정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가 서방 정벌과 동방 정벌을 자신이 완수해야 할 “두 가지 일”로 표현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sup>4)</sup>

그런데 거란 태조가 발해 정벌에 나서면서 다음과 같은 명분을 내세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을해일에 詔를 내려 ‘이른바 두 가지 일 가운데에서 하나를 이미 끝냈다. 그런데 발해는 대대로 원수지간인데도 아직 설욕을 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편안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하고, 군대를 일으켜 친히 발해 大諲譔 정벌에 나섰다(《遼史》 권 2, 本紀 2, 太祖 天贊 4년 12월).

2) 《新五代史》 권 72, 契丹傳.

《資治通鑑》 권 273, 後唐紀 2, 同光 2년 7월.

3) 《遼史》 권 75, 列傳 5, 耶律鐸臻.

4) 《遼史》 권 2, 本紀 2, 太祖 下, 天贊 3년 6월 을유 · 天贊 4년 12월 을해.

발해가 거란과 대대로 원수였다는 말은 일본 기록에도 보인다.<sup>5)</sup> 그러나 건국 초기부터 양국 사이의 관계를 개관해 보면 이 말은 과장된 것에 불과하다. 두 나라 사이에는 친선과 적대의 관계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新唐書》발해전에서 잘 드러난다. 발해 영역이 서쪽으로 거란과 접하면서 주요 대외교통로의 하나로서 契丹道가 설치되어 있었고, 반면에 거란과 통하는 길목인 扶餘府에는 항상 날랜 병사를 주둔시켜 이들을 대비하였다.

그리고 발해가 “본래 거란과 脣齒의 관계에 있었다”<sup>6)</sup>고 한 기록이나, “거란이 일찍이 발해와 화합하였으나 홀연히 의심이 생겨 약속을 어기고 발해를 멸망시켰다”<sup>7)</sup>고 한 기록도 양국이 대대로 원수지간이었다는 말과 배치된다. 따라서 거란 태조의 말은 10세기에 들어와 양자가 대결 국면에 접어들었던 사실을 과장하여 발해를 치기 위한 명분으로 삼았던 것임에 틀림없다.

발해는 서쪽으로부터 위협을 가해오던 거란 세력을 방비하는 데에 부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발해는 주변국가와 제휴하여 공동으로 거란의 진출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직접 거란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모색하여야 하였다. 발해와 제휴할 수 있는 세력으로는 한반도의 후삼국, 중원의 후량과 후당, 바다 건너의 일본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중원의 세력들도 역시 연계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특히 중국의 역대 朝貢 기록을 보면, 912년 11월에 거란이 조공한 것을 끝으로 923년 11월까지 공백기로 남아 있다.<sup>8)</sup> 이것은 이 시기에 후당과 후량 사이에 내전이 계속되면서 외국과의 사신 교환이 단절된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발해는 후삼국에서 제휴세력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sup>9)</sup> 이들 가운

5) 《續本朝通鑑》권 6, 醍醐天皇 延長 8년 4월.

6) 葉隆禮, 《契丹國志》권 1, 天贊 6년.

7) 《高麗史》권 2, 世家 2, 태조 25년 10월.

8) 《冊府元龜》권 972, 外臣部, 朝貢 5.

9) 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史－南北國의 形成과 展開－》(신서원, 1994), 129~152쪽 참조.

데에서 후백제와는 교섭한 기록이 전혀 없고, 다만 신라와 일시적으로 접근한 기록이 보인다. 발해와 신라는 9세기 후반 이후에 상호 경쟁적인 존재로 되었다. 9세기에 들어서 발해가 융성을 구가한 데 반해서 신라는 점차 쇠퇴기로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당나라로부터 과거의 우위를 지키려는 신라와 현재의 우위를 인정받으려는 발해 사이에 여러 차례 경쟁사건이 벌어졌다. 당나라 조정에서 벌어졌던 양국 사신 사이의 爭長事件(897)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두 차례의 賓貢科 수석 다툼(872·906)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양국 사이의 관계는 911년 경에 이르러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사료가 참고된다.

태조가 발해를 공격하여 扶餘城을 함락시키고 나라 이름을 東丹國으로 바꾸었다.…이보다 앞서 발해 국왕 大諲譔은 본래 奚·契丹과 함께 唇齒를 이루어 서로 의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란 태조가 처음에 일어나 8部를 병탄하고, 이어서 군사를 내어 奚國도 병탄하였다. 이리하여 대인선이 두려워하여 몰래 신라 등의 나라들과 結援하였다. 거란 태조가 이를 알고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葉隆禮, 《契丹國志》 권 1).

911년에 거란이 奚와 靺鞨을 정복함으로써 발해를 압박하게 되었고, 그 직후에 발해는 신라 등의 주변국과 비밀리에 연계를 맺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에 한반도에서는 후백제와 후고구려(태봉)가 신라를 압박하던 형국이었으므로, 이 결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양국관계는 이 다음에 다시 바뀌었다. 신라는 915년 10월과 925년 11월 거란에 사신을 파견함으로써 발해와의 결원을 파기하고 거란과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마침내 925년 12월에 거란이 발해 원정에 나서자 일부 군대를 파견하여 거란군을 돕기에 이르렀다.<sup>10)</sup> 그러나 역시 신라의 능력으로 보아서 이 때 파견된 신라군은 거란을 도와준다는 명분을 살리는 데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발해와 태봉 및 고려와의 관계이다. 태봉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10) 《遼史》 권 2, 本紀 2, 太祖 天顯 원년 2월 및 권 70, 表 8, 屬國表.



915년 10월, 918년 2월과 3월에 거란에 사신을 파견하여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던 거란과 관계를 맺었다. 王建이 918년 6월에 왕위에 오른 뒤에도 이러한 정책은 얼마 동안 지속되었다. 따라서 발해와 고려 사이에는 별다른 교섭이 없었을 것이다.

고려가 거란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은 발해 멸망 이후이다. 936년 후삼국 통일을 완결한 뒤에 왕건은 서역 승려 襍囉를 後晉에 보내서 함께 거란을 쳐서 사로잡혀 있던 발해 왕을 구출하자고 제안하였고,<sup>11)</sup> 942년에는 거란 사신을 유배시킨 萬夫橋사건을 일으켰다. 이로부터 980년대까지 양국 사이에는 소원한 관계가 지속되었다. 반면에 고려는 925년 9월부터 발해인들을 받아들였고, 934년 7월에는 발해 세자 大光顯을 왕족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고려는 발해와 ‘婚姻한 나라’ 또는 ‘親戚의 나라’<sup>12)</sup>라는 동질 의식을 더욱 뚜렷이 나타내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발해는 신라와 비밀 결원을 맺은 것 외에는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발해는 918년 2월에 스스로 거란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구하기도 하였다.<sup>13)</sup> 그러나 거란에 사신을 파견한 것이 단 한 차례로 끝나고 말았으니,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거란이 요동을 압박해 옴에 따라 양국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에 가서는 독자적인 힘으로 거란에 대항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1) 李龍範, 〈胡僧 襍囉의 高麗往復〉(《歷史學報》 75·76, 1977 ; 《韓滿交流史研究》, 同和出版公社, 1989).

12) 《資治通鑑》 권 285, 後晉紀 6, 開運 2년 10월.

이 문구에 대해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발해와 고려 왕실 사이에 혼인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보다 몇 년 전에 大光顯을 宗籍에 붙인 사실과 연계시켜 해석하는 편이 가장 순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石井正敏, 〈朝鮮における渤海觀の變遷—新羅~李朝—〉(《朝鮮史研究會論文集》 15, 1978), 53~54쪽.

林相先, 〈高麗와 渤海의 關係—高麗 太祖의 渤海認識을 중심으로—〉(《素軒南都泳博士古稀紀念 歷史學論叢》, 民族文化社, 1993), 128~129쪽.

13) 《遼史》 권 1, 本紀 1, 太祖 神冊 3년 2월 계해.

## 2) 요동의 상실과 멸망

거란 태조는 924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약 1년 3개월에 걸쳐 서방 정벌을 완수한 뒤 곧바로 발해 정벌에 나섰다. 그러나 발해는 단 한 번의 공격에 멸망된 것은 아니었다.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하였다. 遼의 東京 遼陽府를 두고 태조가 20여 년간 힘써 싸워서 얻은 곳이라고 한 것은<sup>14)</sup>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거란은 발해 중심부에 대한 공격에 앞서서 먼저 遼東으로 진출하였다. 8세기 중엽에 일어난 安祿山의 난을 계기로 요동지역에 대한 당나라의 영향력이 급속히 붕괴되어 갔고, 이를 틈타 발해가 이곳으로 세력을 뻗었다. 발해는 3대 문왕 시기에 蘇子河와 渾河 유역으로 진출하여 木底州와 玄菟州를 두었고, 9세기 전반인 10대 선왕 때에 와서 요동으로 재차 진출하여 그 영역이 적어도 요양에까지 미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요동지방의 대부분이 발해의 판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사료에서 요동을 ‘渤海之遼東’으로 표현하였고,<sup>15)</sup> 요의 동경이 원래 발해 땅이었다고 하였으며,<sup>16)</sup> 그 밖에 〈賈師訓墓誌〉에서도 요동이 발해의 소유였음을 밝히고 있다.<sup>17)</sup> 따라서 거란이 이곳으로 진출하기 이전에는 발해 소유였음이 분명하다.

거란이 요동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0세기에 들어와 거란 태조가 정권을 잡은 뒤였다. 먼저 北女眞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903년과 906년 두 차례에 걸쳐 遼河 상류를 정벌하였다. 그리고 908년에 鎮東의 바닷가에 長城을 쌓아 요동 남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909년에는 태조가 직접 요동에 행차하였다. 911년에 奚와 靺을 멸하면서 마침내 그 영역이 동쪽으로 바닷가에

14) 《遼史》 권 28, 本紀 28, 天祚皇帝 天慶 6년 정월 병인.

15) 《舊五代史》 권 137, 外國列傳 1, 契丹.

《資治通鑑》 권 273, 後唐紀 2, 同光 2년 7월.

16) 《遼史》 권 28, 本紀 28, 天祚皇帝 天慶 6년 정월 병인 · 권 36, 志 6, 兵衛 下, 五京鄉丁 및 권 38, 志 8, 地理 2, 東京道. 葉隆禮, 《契丹國志》 권 10, 天慶 6년 봄.

17) 羅福頤, 《滿洲金石志》 권 2(《石刻史料新編》 1집 23책,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이르렀고, 이에 따라 요동으로 통하는 교통로가 완전히 확보되었다.

918년 12월에 태조가 요양의 옛 성에 행차하면서부터 요양지방을 적극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보다 앞서 거란은 발해가 소유하고 있던 요양을 격파하고 그 주민을 上京道로 옮겼기 때문에 이곳이 빈 채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2월에는 이 성을 수리하고 漢人과 渤海人 포로를 옮겼고, 이곳을 東平郡으로 삼아 防禦使를 두었다. 이리하여 이곳이 요동지배의 요충지로 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발해가 반발하여 924년 5월에는 遼州(현재의 遼寧省 新民縣)를 공격하여 刺史 張秀實을 죽이고 그 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탈취해온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요동지방은 여전히 거란의 수중으로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았다. 거란이 924년 7월에 발해가 소유하였던 요동을 공격하였다가 그 해 9월에 아무 소득없이 철군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sup>18)</sup> 이 때 발해는 스스로 거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한편으로 女眞·回鶻·黃頭室韋를 부추겨 협공하도록 하였다.<sup>19)</sup> 거란 태조는 이 무렵에 서방 정벌에 나가 있었으므로 그가 직접 공략에 나선 것은 아니었으니, 서방 원정을 숨기기 위한 양동작전의 일환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꾸준히 요동을 경략하다가 925년 9월에 서방 정벌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온 뒤에 곧바로 발해 공격에 나섰다. 서방 정벌이 발해를 공격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행해진 것이었던 만큼, 12월 16일에 조서를 내려 발해 공격을 표명하고 직접 발해 중심부의 공략에 나섰다. 이 공격에는 회궤·신라·吐蕃·党項·室韋·沙陀·烏古 등도 상징적으로 참여하였다. 아울러 배후세력의 가능성이 있는 후당에 梅老鞋里를 사신으로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sup>20)</sup>

거란의 공격과정에 대해서는 《遼史》本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를 간단

18) 《資治通鑑》권 273, 後唐紀 2, 同光 2년 7월·9월.

《舊五代史》권 32 참조.

19) 《五代會要》권 29, 契丹.

《冊府元龜》권 995, 外臣部, 交侵.

20) 《資治通鑑》권 274, 後唐紀 3, 天成 원년 정월.

《五代會要》권 29, 契丹.

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1)</sup> 거란은 윤12월 4일에 木葉山에 제사를 지낸 뒤, 14일에 烏山에서 靑牛와 白馬로 천지에 제사를 지내고 閱兵을 행하였다. 21일에는 撒葛山에 나아가 鬼箭을 쏘아 발해 공격의 출발을 알렸다. 그 해 마지막 날인 29일 商嶺에 이르러 밤에 발해 扶餘府를 포위하였으니, 9일 동안에 무려 천여 리를 행군하였다. 이 때의 행군 경로는 발해의 契丹道와 일치할 것이다. 따라서 거란 수도가 있던 현재의 巴林左旗(林東)에서 출발하여 西遼河를 따라 내려가면서 開魯, 通遼를 거친 뒤에 다시 東遼河를 거슬러 올라가 懷德을 거쳐 부여부가 있던 農安에 도달하였을 것이다.

이듬해인 926년 정월 3일에 마침내 부여부를 함락시켰는데 포위한 지 만3일 만이었다. 부여부는 거란으로 가는 경유지이면서, 한편으로 항상 군대를 주둔시켜 거란을 방비하던 곳이다. 부여부 아래에는 強師縣이 있는데,<sup>22)</sup> 그 명칭으로 보아서도 발해가 이곳을 군사적 요충지로 생각하였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 부여부는 너무 쉽게 무너진 것이다. 이로 보아서도 발해 멸망에는 내부적인 요인도 개재되어 있었음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거란은 부여부를 함락시킨 뒤 발해 老相이 이끄는 3만 군대와 조우하여 이를 격파시켰다. 그리고 破竹之勢를 이용하여 곧바로 발해 수도의 공략에 나서서, 부여부를 함락시킨 지 만6일 뒤인 정월 9일에 발해의 수도를 포위하였다. 이 과정을 보면 노상이 이끄는 3만 군대가 주력 군대였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들이 부여부 부근에서 격파됨으로써 발해 수도인 忽汗城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 같다. 이리하여 어쩔 수 없이 12일에 발해 왕이 항복을 청하였고, 14일에 정식으로 항복 절차를 밟음으로써 마침내 멸망하였다.

멸망에 즈음한 당시의 발해사회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 사실을 통하여 발해 말기에 기강이 이완되어 갔던 모습을 미루어 볼 수 있다.

21) 발해 공격과정에 대해서는 趙評春, 〈遼太祖攻滅渤海時程考〉(《學習與探索》1986-6) 참조. 그러나 거란 태조가 3軍으로 나누어 발해를 공격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일부 日干支의 날짜 표기도 잘못되었다.

22) 《遼史》권 37, 志 7, 地理 1, 上京道 및 권 38, 志 8, 地理 2, 東京道.

첫째, 발해의 지배를 받던 寶露國이나 黑水·達姑 등의 족속이 점차 발해에서 이탈해가는 현상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 때에 이들 족속들은 독자적으로 신라를 공격하거나 혹은 고려에 내투하거나 중원 왕조에 조공하였다.<sup>23)</sup> 이러한 현상은 886년에 보로국과 흑수국이 신라와 和通하고자 한 데서부터 나타나지만,<sup>24)</sup> 918년에서 92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발해 사신의 망명 사건이다.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일행 가운데에서 망명한 사건이 두 차례 있는데, 하나는 810년에 首領 高多佛이 이탈한 사건이고,<sup>25)</sup> 다른 하나는 920년에 4명이 망명한 사건이다.<sup>26)</sup> 그런데 공교롭게도 앞의 사건은 발해에 내분이 빈번하던 시기이고, 뒤의 사건은 멸망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들의 망명 사건은 발해사회 내부의 기강 해이와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발해 말기의 사회에 다소 허무주의적인 기풍이 감돌고 있었던 점이다. 이것은 당나라 徐夔가 지은 〈斬蛇劍賦〉, 〈御溝水賦〉, 〈人生幾何賦〉를 발해 사람들이 집집마다 金으로 써서 병풍을 만들어 놓은 사실에서 추정할 수 있다.<sup>27)</sup> 이들의 주제는 당나라 말기의 사회 모습을 비판한 것들로서,<sup>28)</sup> 당시에 발해사회의 분위기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발해의 멸망 원인을 살펴보자. 발해가 거란의 공격에 쉽게 무너져버린 원인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논의되어 왔다.<sup>29)</sup>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증언해 주는 자료는 없지만, 크게 보면 외적

23) 이에 대해서는 《高麗史》 권 1·권 82, 《高麗史節要》 권 1, 《五代會要》 권 30, 《冊府元龜》 권 972 및 권 999 등에 보인다.

24) 《三國史記》 권 11, 新羅本紀 11, 桓康王 12년 봄.

25) 《日本紀略》前篇 권 14, 嵯峨天皇 弘仁 원년 5월 병인.

26) 《扶桑略記》 권 24, 醍醐天皇 延喜 20년 6월 26일.

27) 《全唐詩》 11函 1冊, 徐夔.

28) 金武植, 〈渤海 文學 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碩士學位論文, 1992), 11~12쪽.

29) 三上次男, 〈渤海國の滅亡事情に關する一考察—渤海國と高麗との政治的關係を通じて見たる—〉(《和田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 1951; 《高句麗と渤海》, 東京; 吉川弘文館, 1990).

방학봉, 〈발해의 멸망원인에 대하여〉(《발해사연구》 1, 연변대학출판사, 1990).

金恩國, 〈渤海滅亡에 관한 재검토—거란 침공과 그 대응을 중심으로—〉(《白山學報》 40, 1992), 88~93쪽.

요인과 내적 요인의 두 가지 방면에서 얘기할 수 있다. 외적 요인으로는 멸망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란의 침공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다루었다. 다음으로 내적 요인으로는 정치적 內紛을 손꼽을 수 있다. 발해에 내분이 일어났던 사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耶律羽之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야율우지가 表를 올려 말하기를 ‘…先帝(太祖)께서 발해가 離心해진 것을 틈타서 군사를 움직이니 싸우지 않고 이겼다…’고 하였다(《遼史》 권 75, 列傳 5, 耶律羽之).

여기서 이심하였다는 것은 발해에 내분이 일어났음을 암시한다. 부여부가 쉽게 함락된 것도 이러한 내부 사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황태자인 耶律倍가 파죽지세를 이용하여 발해 수도를 공략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이 말이 맞아떨어졌다.<sup>30)</sup>

또 다른 증거로 흔히 발해인의 고려 망명 사건을 들기도 한다. 발해가 멸망한 것이 926년(고려 태조 9) 정월인데, 그 이전인 925년 9월 6일과 10일, 12월 29일의 세 차례나 망명 사건이 있었다.<sup>31)</sup> 그리고 이들의 직책을 보면 禮部卿, 工部卿, 司政과 같은 장관이나 차관을 비롯한 문무 고관들이 포함되어 있고, 성씨를 보더라도 왕실 인물이 주축을 이루었으며, 이들이 이끌고 온 백성들도 500명, 100戶, 1천 호 등으로 대규모였다. 이러한 사실은 내분의 규모가 그만큼 컸음을 의미한다.<sup>32)</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해는 거란의 침공이라는 외적 상황과 정치적 내분이라는 내적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926년 정월에 230년에 가까운 역사를 마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宋基豪〉

30) 《遼史》 권 72, 列傳 2, 宗室 義宗倍.

31) 《高麗史》 권 1, 世家 1, 태조 8년 9월 병신·경자·12월 무자.

32) 이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내분이 크게 일어났다고 해도 멸망되기 전에 장관을 비롯한 발해의 중추 세력들이 대규모로 망명했겠느냐 하는 점 때문이다(박시형 저·송기호 해제, 《발해사》, 이론과실천, 1989, 113쪽).

### 3. 발해유민의 부흥운동

#### 1) 발해유민의 의미

##### (1) 발해유민과 발해유예

遺民의 사전적 의미는 “없어진 나라의 남아 있는 주민”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발해유민이란 발해국이 멸망한 후 남아 있었던 그 주민이다. 그런데 이들 발해유민은 그들의 처신과 행방에 따라서 다섯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거란 침략자를 피해 거란의 통치력이 약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인접국에 投化<sup>1)</sup>하였던 무리들이다. 이들은 大光顯 등과 같이 대부분 고려로 이동하였는데 대다수가 ‘발해’사람이었으나, 발해가 멸망한 뒤 어느 시점부터는 ‘발해’가 아닌 ‘契丹’이나 ‘女眞’사람으로 《高麗史》 등에 등장하기도 한다. 둘째, 발해가 멸망한 후에 거란에 협조하였던 지배층 유민들이다. 이들은 거란의 힘에 굴복하여 거란의 협조자가 되었으며, 고려·거란과의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두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는 거란군의 장군으로서 피지배 발해유민들을 통솔하기도 하였다. 셋째, 거란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피지배층 유민들이다. 발해시대에 이들은 발해 왕실에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던 피지배층들이었다. 그들은 생활의 근거지를 박차고 과감히 고향을 떠나지도 못하던 무리들로서 이들은 분명 두번째 유민들과는 구별된다. 이들은 기록에서 주로 ‘거란’이나 ‘熟女眞’ 등으로 등장한다. 넷째, 거란과의 관계에서는 반독립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생존과 관련된 실리를 추구하며 대처했던 유민들이다. 주로 고려와 관계가 깊었던 ‘生女眞’ 부락들이 여기에 속한다. 여진은 흑수말갈과 발해유민의 통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2)</sup> 다섯째,

1) 《高麗史》 등에는 발해인들이 ‘來投’ 즉 와서 투화하였다고 전한다. 이 용어는 현대적 의미로 ‘投降’ 내지 ‘歸化’이며, 정치적 ‘亡命’의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金渭顯, 〈完顔部の 女眞統合策〉(《青坡盧道陽博士古稀紀念論文集》, 1979, 4쪽; 《遼金史研究》, 裕豐出版社, 1985).

발해국의 옛 강토 안에서 발해 부흥을 위하여 거란과 맞서거나 대항해 싸웠던 유민들이 있었다. 이들은 後渤海와 定安國을 건설하기도 하였고, 발해 멸망 후 100년이 지나서도 興遼國과 大渤海國을 세우기도 하였다.

발해유민에는 발해시대의 지배층이나 피지배층 모두가 그 범주에 포함되지만, 발해국 멸망 후 발해유민의 의미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위에서 분류된 두번째 이후의 유민들 중에는 이민족인 거란의 지배 밑에 들어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발해사람임을 포기하고 ‘거란’사람이 된 자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거란이나 여진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발해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었다. 따라서 발해유민의 실상 파악문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발해가 멸망한 직후 발해인으로서 국가 의식이 비교적 강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발해에 대한 의식이 사라졌거나 약화되었던 후대의 발해계 ‘거란’사람 등은 일단 구별해야 할 것이다. 즉 전자는 좁은 의미의 발해유민이고 후자는 渤海遺裔 또는 발해계 거란인이나 발해계 여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발해유민이나 발해유예는 모두 넓은 의미의 발해유민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 (2) 발해국 지배층의 성씨 분포와 그 유민

발해유민을 《고려사》나 중국이나 일본측의 기록에서 가려내는 작업은 ‘발해유예’를 그 범주에 포함시킬 때에 쉽지 않은 일이다. 좁은 의미의 발해유민은 ‘발해 아무개’와 같이 국적이 확실히 밝혀진 사람들을 뽑으면 된다.<sup>3)</sup> 그러나 ‘거란(요) 아무개’도 때에 따라서는 발해유민으로 보아야 한다. 이름이 밝혀진 사람들 중에 거란 국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발해유민으로 볼 수 있는

韓主哲, 〈高麗 來投・來住 女眞人—渤海遺民과 관련하여—〉(《釜山史學》 25・26, 1994).

3) 李鍾明, 〈高麗에 來投한 渤海人考〉(《白山學報》 4, 1968).

權兌遠, 〈高麗初期 社會에 미친 歸化人의 影響에 관한 考察〉(《忠南大 人文科學論文集》 19, 1981).

金昌謙, 〈後三國 統一期 太祖 王建의 溘西豪族과 渤海遺民에 대한 政策研究〉(《成大史林》 4, 1987).

朴玉杰, 〈高麗時代의 渤海人과 그 後裔〉(《退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 1988).



사람들은, 우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거란’으로 표기되는 경우와, 그 다음으로 거란사람들 중에서 발해 지배층에 많이 나타났던 사람들의 성씨, 이를테면 ‘高아무개’, ‘大아무개’와 같은 사람들, 끝으로 앞뒤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발해유민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경우 중 첫번째의 예는 찾아볼 수 없고, 두번째와 세번째의 경우를 통해서 거란 국적을 가진 발해유민을 구별해 낼 수 있다.

우선 여러 사료들 가운데서 발해인으로 이름이 밝혀진 성씨를 종합해 보기로 한다. 물론 성씨가 밝혀진 고아무개나 대아무개만이 발해유민이 아닐 것임은 분명하다. 오히려 성씨가 밝혀져 있지 않은 이를테면, 고아무개나 대아무개의 이름 뒤에 따라붙는 몇 십·몇 백·몇 천의 사람들도 이름이 밝혀져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발해인이었기 때문이다. 金毓黻의 《渤海國志長編》에 의거하여 발해인의 성씨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sup>4)</sup>

<표 1> 발해 지배층 성씨 분포표

姓	宗 臣	諸 臣	士 庶	遺 裔	計	姓	宗 臣	諸 臣	士 庶	遺 裔	計
大	49			41	90	郭				2	2
高		32	1	23	56	茹		1	1		2
王		8		14	22	馬		2			2
李		13		5	18	已		2			2
張		2		11	13	薩			1	1	2
烏		6		5	11	正			2		2
楊		8		1	9	安		2			2
慕		3			3	劉			1	1	2
史		2		1	3	裴		2			2
賀		3			3	기 타		32	3	30	65
多		2			2	1명씩					
崔		2			2						
釋		1	1		2	計	49	132	8	137	317

4) 金毓黻의 《渤海國志長編》宗臣·諸臣·士庶·遺裔列傳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위의 釋은 승려로서 俗姓은 알 수 없다.

표에 나타난 사람들의 성씨 분포를 보면 大氏가 90명, 高氏가 56명, 王氏가 22명, 李氏가 18명, 張氏가 13명의 순이다. 이것은 발해와 고구려 왕족이었던 대씨와 고씨가 발해 왕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씨 다음으로 나타난 王·李·張·烏·楊氏들도 발해사회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들도 모두 발해의 지배층이었다.

앞의 〈표 1〉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료는 중국측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다.

옛날 그(발해) 왕은 姓이 大氏였고, 右(貴)姓으로는 高·張·楊·寶·烏·李氏의 몇 종류에 불과했으며, 部曲·奴婢·無姓者는 모두 그들 주인의 姓을 따랐다(洪皓, 《松漠紀聞》 권 上, 渤海).

이것은 대부분 앞의 성씨분포표와 일치하는데, 단지 寶氏가 분포표에서 1명도 없다는 것이 예외라 하겠다. 또한 위의 여섯 개의 右姓(貴族姓) 외에 발해의 庶姓으로 49개의 성씨가 있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다.

賀·王·任·馬·馮·呂·裴·崔·已·慕·郭·木·史·辛·解·趙·劉·朱·衛·吳·洪·林·申·夏·梁·羅·文·安·朴·胥·茹·卯·門·隱·周·列·公·多·聿·受·智·壹·忽·古·阿·達·冒·謁·渤海(金毓黻, 《渤海國志長編》 권 16, 族俗考 3).

이들 성씨는 앞의 성씨분포표에서 대부분 2명 내지 1명씩 있었던 사람들로, 김육불은 이들을 모두 庶姓이라 하였으나 오히려 우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7세기말에서 10세기 초엽에 성씨를 가졌던 사람들은 발해에서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2) 전기 부흥운동—후발해와 정안국—

발해가 멸망한 후 그 유민들 가운데서 발해왕조를 다시 세우려는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발해유민들의 자발적 운동 결과는 아니었지만, 발해가 멸망한 후 발해인들이 다수 참여한 최초의 왕조는 발해의 옛 수도 忽汗城(上京 龍泉府)에

세운 東丹國이었다.<sup>5)</sup> 그러나 동란국은 거란 정복자들이 세운 괴뢰정권이었으므로 이를 발해 부흥운동의 일환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동란국의 왕은 거란 耶律阿保機의 큰 아들 耶律倍였고 기타의 고위직에 발해인들이 상당수 등용되었던 것은 발해인을 회유하기 위한 배려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거란에 의한 동란국 건설의 근본 목적은 발해지역의 거란화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목적은 발해유민의 저항 등으로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몇 가지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첫째는 927년 동란국 수도를 홀한성에서 거란 수도와 가까운 遼陽으로 옮겼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동란국의 右次相 耶律羽之가 수도를 옮기는 이유로 “홀한성의 위치가 거란의 상경 용천부와 너무 멀어, 만약 발해유민이 이러한 구석진 곳에서 서식하면 반드시 뒷날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였던 점이다.<sup>6)</sup> 셋째는 926년 8월 거란이 항복시켰던 발해의 長嶺府 등을 다시 정벌하였던 점<sup>7)</sup> 등이다. 그리고 거란은 압록강 중류와 두만강 하류 일대 특히 한반도 서북부의 옛 발해 영토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못 쓰고 있었으며, ‘여진’으로 남아 있던 발해유민들에게 많은 저항을 받고 있었다. 어쨌든 대다수 발해유민들이 거란에게 제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시기는 後渤海 兀惹정권이 거란의 공격을 받고 싸우다가 평화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1004년(거란 聖宗 統和 22) 전후가 아니었을까 한다.

발해가 멸망한 후 거란에 의해 세워졌던 동란국이 927년 서쪽의 요양으로 옮겨가고, 그 곳 홀한성에 발해 대씨 왕실의 진정한 부흥 왕조가 세워졌는데, 이것을 926년 이전의 발해와 구별하여 「후발해」라고 한다.<sup>8)</sup> 후발해의 건

5) 東丹國은 일반적으로 「동단국」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그 명칭은 원래 동쪽의 거란(금안)이라는 뜻이므로 「동란국」 또는 「동안국」이라고 하여야 할 것 같다.

6) 동란국 수도의 천도 이유에 대해서는 동란왕 야율배의 아우였고 거란 태종이었던 耶律德光이 그의 형 동란국왕 야율배를 제치고 아버지 야율아보기의 급작스러운 병사를 이유로 거란국왕이 되었던 형제간의 알력 때문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李龍範, 〈高麗와 渤海〉,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74, 70~72쪽).

7) 《遼史》 권 2, 本紀 2, 太祖 下, 天顯 원년 3월 및 8월.

8) 和田清, 〈定安國に就いて〉(《東洋學報》 6, 1916; 《東亞史研究(滿洲篇)》, 東洋文庫, 1955)에서 後渤海를 언급한 이래 日野開三郎, 〈後渤海の建國〉(《帝國學士院紀事》 2-3, 1943)에 의해 그 이름이 굳어졌다(韓圭哲, 〈渤海復興國 ‘後渤海’ 연구—연구동향과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62, 國史編纂委員會, 1995 참조).

국 연대는 高正詞가 발해 사신으로 후당에 갔던 929년경으로 보고 있으며,<sup>9)</sup> 멸망 시기는 후발해의 을야정권이 거란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붕괴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1003년 무렵으로 보고 있다.<sup>10)</sup> 사실 발해유민과 거란과의 관계에서 ‘발해’라는 이름이 최후로 나오는 것이<sup>11)</sup> 바로 이 때였다.

후발해의 수도는 옛 발해 수도가 있던 흘한성으로 짐작되며,<sup>12)</sup> 그 시조는 발해국의 대씨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후발해의 대씨정권은 곧 그들의 실질적 권력을 을야 출신의 烏氏에게 빼앗겼다. 「대씨발해」가 「오씨발해」로 바뀐 것이다.<sup>13)</sup> 후발해의 발전은 군사·외교적 면에서 두드러졌다. 975년에는 거란에게 반기를 들고 도망해온 발해유민 출신의 장수 燕頤와 함께 발해의 옛 부여부를 탈환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펴기도 하였다. 그리고 발해의 옛 長嶺府지역이었던 輝發河(回跋河) 유역에서의 싸움에서도 원군 7천 명을 보내기도 하였으며,<sup>14)</sup> 979년경에는 定安國의 일부 세력을 규합하기도 하였다. 한편 외교적 면에서는 후당에 高正詞, 成文角 등을 7차례나 보내기도 하였다.<sup>15)</sup> 그러나 후발해와 중국과의 관계는 954년 7월 발해 호족(酋豪) 崔烏斯 등 30인이 後周에 귀화했던 기록이<sup>16)</sup>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9) 발해에서 사신 高正詞를 파견하여 입조하고 특산물을 바쳤다(《冊府元龜》권 972, 外臣部, 朝貢 5, 後唐 天成 4년 5월 및 《五代會要》권 30, 渤海, 後唐 天成 원년).

10) 《遼史》권 14, 本紀 14, 聖宗 統和 21년 4월 무진.

11) 後渤海의 멸망 시기는 日野開三郎의 견해를 따랐다. 그러나 和田淸의 생각을 받아들인 李龍範은 후발해의 존속기간을 10여 년으로 보았다. 즉 후발해의 대씨 왕실이 10여 년만에 烈氏 定安國에게 왕실을 찬탈당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和田淸, 앞의 글 및 李龍範, 앞의 글, 76~78쪽).

12) 日野開三郎은 忽汗城이 975년경에는 兀惹城으로 고쳐 불려졌다고 하였다. 한편 李龍範은 和田淸의 생각을 받아들여 後渤海의 중심지도 忽汗城이 아닌 鴨綠江 일대로 보았다(日野開三郎, 〈兀惹部の發展(3)〉, 《史淵》 32, 1944, 42~53쪽 및 李龍範, 위의 글, 73~76쪽).

13) 兀惹를 “을야 자체는 여진족의 집단이나, 그 지배층은 여진화된 발해민 오씨일 것”이라고 한 견해가 있다(李龍範, 위의 글, 85쪽). 그러나 필자는 오씨가 발해 시대 「고씨」 등과 함께 귀족성의 하나였다는 사실과, 대조영이 송화강 출신으로 후대에 그를 「속말말갈」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발해시대의 을야 부락 역시 발해국의 한 부락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14) 《遼史》권 8, 本紀 8, 景宗 上, 保寧 7년 9월.

15) 日野開三郎, 앞의 글(1943), 474~477쪽.

16) 崔烏斯는 崔烏斯多·烏斯多·烏思羅와 같은 인물로 보고 있다. 그의 귀화 기록

후발해는 주로 내정과 거란과의 관계에 관심을 쏟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상경 용천부를 중심으로 하여 후발해가 발해의 부흥왕조로서 계승되고 있을 때에, 한편으로 발해의 서경 압록부였던 압록강 일대를 중심으로 한 발해 유민들의 부흥운동이 烈氏 定安國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sup>17)</sup> 정안국의 건국 연도에 대해서는 935~936년설과 937년설, 970년설 등이 있다.<sup>18)</sup> 아무튼 정안국에 관해서는 《宋史》 열전에도 나와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정안국은 970년에 국왕 烈萬華가 송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다고도 한다.<sup>19)</sup>

그렇다면 고려 경종 4년(979)에 고려에 내투해 오는 수만 명의 발해사람들은<sup>20)</sup> 대체로 정안국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sup>21)</sup> 당시 고려의 北進策은 정안국과 마찰하였을 가능성도<sup>22)</sup>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 3) 후기 부흥운동－흥요국과 대발해국－

#### (1) 대연림의 흥요국

후발해의 烏氏政權이 거란의 공격으로 무너진 뒤 발해유민들의 부흥운동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구심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발해의 귀족 유민들이 주도했던 발해의 부흥운동이 이제는 그 힘을 상실했던 것으로 여겨진

은 《宋史》 권 491, 列傳 250, 外國 7, 渤海國 및 《五代會要》 권 30, 渤海, 後周顯德 원년 참조.

17) 池內宏, 〈遼の聖宗の女直征伐〉(《史學雜誌》 26-6, 1915).

——, 〈余の遼聖宗征女眞考と和田博士の定安國考について〉(《東洋學報》 6-1, 1916).

三上次男, 〈高麗の定安國〉(《東方學報》 11-1, 1940).

日野開三郎, 〈定安國考(一・二・三)〉(《東洋史學》 1・2・3, 1950・1951).

和田清, 앞의 글.

18) 935~936년설은 三上次男, 위의 글, 338~339쪽, 937년설은 日野開三郎, 위의 글(二), 45~54쪽, 그리고 970년설은 和田清, 위의 글 참조.

19) 《宋史》 권 491, 列傳 250, 定安國.

이 때를 定安國의 건국 연대로 보는 견해도 있다(和田清, 위의 글).

20) 《高麗史》 권 2, 世家 2, 경종 4년.

21) 三上次男, 앞의 글, 340쪽.

22) 三上次男, 위의 글.

姜大良, 〈高麗初期의 對契丹 關係(上)〉(《史海》 1, 1948), 33쪽.

다. 단지 生女眞으로 기록되는 발해의 피지배 유민들의 반거란적 저항운동과 친고려적 대외 활약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들 (생)여진부락들의 대외 활동은 주로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어서, 고려에 대해서는 친선과 약탈이라는 양면적 모습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은 고려 조정으로부터 “사람 얼굴에 짐승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비추어지기까지 하였다.<sup>23)</sup>

발해의 또 다른 부흥운동은 고려와 거란이 3차에 걸친 치열한 전쟁을 치른 뒤 고려가 거란의 연호를 쓰고 있던 시기에 일어났다. 1029년(거란 聖宗 太平 9) 大延琳이 일으킨 이른바 興遼國이 그것이다. 대연림은 발해의 왕손으로서 거란에서 東京 遼陽府의 大將軍(東京舍利軍 詳穩)으로 활약하던 친거란과의 발해유민이었다. 그런데 대연림은 당시 동경 요양부의 戶部使 韓紹勳과 戶部副使 王嘉 등의 失政으로 인해 야기된 민심 동요를 틈타 거사하였다. 대연림은 東京留守 駙馬 蕭孝先과 남양공주를 가두고 한소훈·왕가 등을 살해한 뒤 이곳에서 즉위하여 나라 이름을 흥요국이라 하고 연호를 天慶이라 하였다(1029).<sup>24)</sup>

그런데 대연림의 거사는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1029년 당시 발해의 옛 지역은 이미 거의 거란의 지배밑에 들어가 있었고, 피지배층의 발해 후손들 역시 발해에 대한 왕조 의식이나 종족 의식이 쇠퇴하거나 소멸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연림과 같이 계획을 세웠던 왕도평이 대연림으로부터 도주하였는가 하면, 保州(현 義州)의 발해 출신 太保 夏行美도 거란에 대연림이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밀고하여 억울하게 발해 출신

23) 발해유민이라는 시각은 아니지만, 당시 여진의 활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金庫基, 〈여진 관계의 시말과 윤관(尹瓘)의 북정〉(《국사상의 제문제》 4, 국사편찬위원회, 1959; 《東方史論叢》, 서울大 出版部, 1974).

金渭顯, 앞의 글, 131~156쪽.

李東馥, 〈遼末 女眞社會의 社會構成—三十部女眞의 問題—(Ⅲ)〉(《人文科學論集》 3, 淸州大, 1984; 《東北亞細亞史研究—金代女眞社會의 構成—》, 一潮閣, 1986).

24) 《遼史》 권 17, 本紀 17, 聖宗 8, 太平 9년.

《高麗史》 권 5, 世家 5, 현종 20년 9월 무오.

《高麗史節要》 권 3, 현종 20년 9월.

그런데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興遼國의 연호는 「天興」이었다고 전한다.

의 병사 8백여 명을 죽게 하였다.<sup>25)</sup> 오직 대연립 등에게 힘이 될 수 있었던 세력은 남북의 여진부락과 수 차례의 전쟁을 치렀던 고려뿐이었다.

대연립의 발해국 부흥운동에서 주목되는 점은 홍요국과 고려와의 관계이다. 즉 대연립이 끈질기게 고려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이는 발해와 고려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아가 발해와 신라의 관계까지를 생 각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믿어진다. 그러므로 고려에서 홍요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홍요국에 관한 고려 측의 기록이다.

① 契丹 東京將軍 大延琳이 大府丞 高吉德을 파견하여 건국한 것을 알리고 아울러 구원을 청하였다. 대연립은 발해 시조 大祚榮의 7대손인데, 이 때 그는 거란을 배반하고 일어나서 국호를 興遼라 하고, 연호를 天興이라 하였다(《高麗史》 권 5, 世家 5, 현종 20년 9월 무오).

② (顯宗) 20년에 興遼가 난을 일으키니 거란이 사신을 보내어 원조를 구하므로 郭元이 몰래 (왕에게) 아뢰기를, ‘압록강 동쪽 기슭지역을 거란이 保障하고 있으나 이제 기회를 타서 빼앗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崔士威·徐訥·金猛 등이 모두 글을 올려 불가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靺鞨이 고집하여 군사를 보내어 쳤으나 이기지 못하였으므로 부끄럽고 분하게 여겨 등창이 나서 죽었다 (《高麗史》 권 94, 列傳 7, 郭元).

③ 거란의 동경장군 大延琳이 난을 일으켜 興遼國이라 자칭함에 刑部尙書 郭元이 기회를 틈타서 압록강 동쪽 기슭지역을 취하기를 청하였다. 崔士威가 徐訥 등과 더불어 글을 올려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靺鞨이 고집하여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싸우다가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청하였다. 왕이 여러 輔臣과 의논하는데 崔章事 蔡忠順과 더불어 말하기를 ‘兵은 위험한 일이라 가히 삼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저들끼리 서로 치는 것이 어찌 우리에게 이익되지 않을 줄 알리오. 다만 城池를 修築하고 烽燧를 삼가하게 하여 그 변을 관망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것을 따랐다(《高麗史》 권 94, 列傳 7, 崔士威).

④ 이 때 興遼國 大師 大延定은 東北女眞을 이끌고 契丹과 더불어 서로 싸우면서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을 애걸하였다. 왕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길이 막혀 거란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高麗史》 권 5, 世家 5, 현종 20년 12월).

25) 《遼史》 권 17, 本紀 17, 聖宗 8, 太平 9년 기축.

⑤ 興遼國이 또 水部員外郎 高吉德을 파견하여 글을 올려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애걸하였다(《高麗史》 권 5, 世家 5, 현종 21년 정월 병인).

⑥ 契丹의 水軍指麾使虎騎尉 大道·李卿 등 6명이 내투하였다. 이로부터 契丹·渤海사람들의 來附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高麗史》 권 5, 世家 5, 현종 21년 5월 을축).

⑦ 興遼國 行營都部署 劉忠正은 寧州刺史 大慶翰을 파견하여 글을 올려 구원해 주도록 애걸하였다(《高麗史》 권 5, 世家 5, 현종 21년 7월 을축).

⑧ 興遼國 郢州刺史 李匡祿이 와서 위급함을 말하며 구원을 청하였다. 마침 나라가 망하였다는 말이 들리자, 그는 드디어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갑술에 金胥如를 거란으로 파견하여 동경을 수복한 것을 축하하였다. 을해에 거란 왕은 千午將軍 羅漢奴를 파견하여 말하기를 ‘근래에 사신을 파견하여 왕래하지 못한 것은 길이 막혔던 까닭인데, 지금 발해가 僞主하였다가 이미 항복하였으니 마땅히 陪臣을 파견하여 빨리 와서 赴國하면 반드시 나라에 우려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10월 신사 초하루에 韓祚를 西京留守사로 삼았다. 이 달에 거란의 奚哥와 발해민 500여 명이 내투하므로 강남의 州郡에 보내어 살게 하였다(《高麗史》 권 5, 世家 5, 현종 21년 9월 병진).

⑨ 이 때에 契丹渤海民 40여 명이 내투하였다(《高麗史》 권 5, 世家 5, 현종 22년 3월 갑인).

위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대연림이 무려 5차례나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1차에는 대부승 고길덕을(1029), 2차에는 대사 대연정을(1029), 3차에도 다시 수부원외랑 고길덕을(1030), 4차에는 영주자사 대경환을(1030),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자사 이광록을 파견하여 고려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지원 불가 결정은 반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고려 조정에서는 이러한 대연림의 원조 요청에 대하여 찬반 양론의 격론이 있었는데, 형부상서 광원이 이 기회를 틈타 압록강 동쪽 연안의 거란병을 몰아내어 고려의 숙원을 이루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하시중 최사위와 서눌·김맹 등이 이것을 반대하였다고 한다. 결국 대연림의 발해 부흥운동은 고려의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1030년 대연림은 그의 부하였던 楊祥世가 거란과 내통하여 성문을 열어주었으므로 거란에 사로잡혀 거사한 지 1년 만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sup>26)</sup> 이에 따라 거란은 발해국 부흥



운동의 싹을 없애고 그들을 이간시키기 위하여 발해유민들을 강제로 거란의 上京 臨潢府지역으로 이주시키기도 하였다.<sup>27)</sup>

그러나 홍요국의 부흥운동이 실패하자 많은 발해유민들이 고려에 망명하였는데, 위의 사료들을 비롯해서 이후 덕종 2년(1033)까지 고려로 내투·내부하는 발해·거란사람들은 이들이 아니었던가 한다.<sup>28)</sup> 이와 같은 발해유민의 고려로의 망명은 단순한 정치적 망명의 성격을 넘어, 대연림이 그들의 도움 요청 대상으로 고려를 끈질기게 기대하고 있었던 점과도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즉 고려 태조가 발해를 「親戚之國」으로 인식하였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는 994~1016년에 이어 1022년부터 1116년까지는 줄곧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는 등 거란과 정치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관계는 고려의 親宋의 이중외교와 마찰을 빚어 거란과 3차에 걸친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고려는 거란과 단교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려왕은 거란의 책봉을 받고 謝恩使를 파견하는 관계로 변하였다. 책봉을 통한 외교적 승인은 대개 唐·宋 등 중국 왕실과의 관계에서 행해지던 절차였다. 그러나 고려는 거란과의 3차 전쟁 이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관계 개선을 수락하고, 이후 역대 왕들이 거란으로부터 책봉을 통한 외교적 승인까지 받아왔다.<sup>29)</sup>

따라서 거란에 반대하여 발해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발해유민의 고려 내투는 결코 고려와 거란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없었다. 특히 대연림 등이 고려와 대통했던 사실은 거란이 이를 알았든 몰랐든간에 양국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거란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고려 조정에서는 비록 그 명분이 현실적이었으나 곽원 등에 의하여 대연림을 돕자는 주장이 거세

26) 《遼史》권 17, 本紀 17, 聖宗 太平 10년 8월 병오.

27) 《遼史》권 17, 本紀 17, 聖宗 太平 10년 11월.

28) 李鍾明, 앞의 글, 213쪽.

李龍範, 앞의 글, 89~90쪽.

특히 이 때 「渤海」人으로 표기되는 사람들 이외 「契丹」人으로 표기되는 사람들도 대부분 발해 후손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는 다음 3節 참조.

29) 《高麗史》권 6, 世家 6, 靖宗 9년 11월 신사·권 7, 世家 7, 文宗 원년 9월 임오·권 10, 世家 10, 선종 2년 11월 계축·권 10, 世家 10, 현종 즉위년 및 권 12, 世家 12, 예종 3년 2월 병오.

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홍요국 실패 이후 많은 유민들이 고려를 그들의 망명처로 삼았다. 그들이 송나라를 망명처로 삼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지리적인 불편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고려에 대연정·고길덕 등을 보내어 발해 부흥운동을 도와 달라고 했던 명분과 같은 이유에서 고려를 그들의 망명처로 삼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홍요국의 발해국 부흥운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발해가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난 후 발해유민들의 생각과 고려 사람들의 생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첫째는 그 국호에서 알 수 있듯이 발해유민들은 발해국에 대한 국가의식이 상실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려가 명분상으로나 실질적 면에서 발해계 거란인들을 발해유민이 아닌 거란인들로 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발해유민들이 그들의 조상이었던 발해의 국호를 직접 쓰지 못하고 거란의 遼를 쓰고 있었던 사실은 발해유민들이 상당한 정도로 契丹化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연림의 홍요국은 처음부터 실패할 가능성이 큰 발해국 부흥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연림이 고려에 수차에 걸쳐 원군을 청했던 사실은 아직까지 그들에게 남북국시대의 역사의식이 일정하게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전의 발해시대에 발해가 신라에 도움을 청하였다가 승낙을 받았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sup>30)</sup> 즉 대연림이 단순히 고려가 거란과 인접하였고, 수년간 전쟁을 치렀기에 이 때를 이용하여 거란을 함께 공격하는 현실적 이유만으로 고려에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음으로는 홍요국의 도움 요청을 받았던 고려 조정의 태도가 문제이다. 고려는 건국 초기 발해를 '친척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발해가 멸망한 지 100여 년이 지나서 고려는 단순히 잃어버린 땅을 찾겠다는 명분만으로 홍요국의 발해 부흥운동을 인식하고 있었다. 고려 조정에서는 발해 멸망시 신라인들이 발해를 돕겠다고 약속하였던 그런 역사적 명분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30) 韓圭哲, <발해와 신라의 교섭관계> (《渤海의 對外關係史－南北國의 形成과 展開－》, 신서원, 1994) 참조.

## (2) 고영창의 대발해국

홍요국 붕괴 후 많은 발해유민들이 요양지방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강제 이주되었지만, 이 지역의 발해유민들은 그래도 상당수가 남아 있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1116년(거란 天祚帝 天慶 6) 정월에 발해유민 高永昌이 다시 「大渤海國」을 세워 발해국의 부흥을 꾀하였다.

발해가 멸망한 지 190년이 지나서 거사를 한 고영창도 처음에는 여느 발해의 지배층 유민들과 같이 거란에 협조하던 발해 후손이었다. 그러나 그도 거란이 여진 完顏 阿骨打의 공격을 받고 붕괴되어갈 무렵, 아골타 무리를 물리치기 위하여 당시 거란 황제였던 天祚帝가 그에게 渤海武勇馬軍 2천을 모집하여 遼陽府 부근의 白草谷을 지키게 하였던 기회를 이용하여 발해 부흥국을 세웠다. 고영창은 당시 東京留守 蕭保先에 대해 반감을 가진 발해유민들을 선동하여 1116년 정월에 그의 거사에 호응한 발해병 8천 명으로 동경 요양부를 점령하고 스스로가 대발해국 황제에 즉위하여 隆基라는 연호도 사용하였다.<sup>31)</sup>

대발해국은 그들이 발해 부흥 왕조를 세운 지 10여 일 만에 요동의 50여주를 석권하는 위세를 떨쳤으며, 貴德州(鐵嶺市 東南)의 거란 장수 耶律余睹조차 廣州에서 이 거사에 순종하는 형세였다. 고영창은 한때 거란과 瀋州(瀋陽)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신흥 금나라와 협상도 갖는 등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고영창은 황제를 고집하는 등 경직된 협상을 벌이다 이것이 결렬되자 오히려 금나라 군대에 의해 참살되면서,<sup>32)</sup> 대발해국을 통한 부흥운동 또한 실패하고 말았다.

31) 《高麗史》권 14, 世家 14, 예종 11년 3월 임인.

《高麗史節要》권 8, 예종 11년 3월.

《遼史》권 28, 本紀 28, 天祚帝 天慶 6년.

葉隆禮, 《契丹國志》권 10, 天祚帝 天慶 6년.

「大渤海國」의 國號에 대해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모두 大元이라 전하고 있고, 그 연호를 《거란국지》는 應順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대발해국에 관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요사》의 기록을 취하고 있고, 그 내용도 다른 기록들에 비해서 《요사》가 풍부하여 필자도 이에 따른다.

32) 《金史》권 71, 列傳 9, 韓魯.

대발해국은 고영창이 내세운 국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해 계승의식이 명확히 나타난 이른바 명실상부한 발해 부흥국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030년 대연림이 부흥시키려던 홍요국은 그 국호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발해 계승의식이 많이 쇠퇴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대발해국은 발해가 망한 지 200년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발해국이라 호칭하였던 것은 거란 내부의 발해유민들의 역사의식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연림이 세웠던 발해 부흥국 홍요국과 고려 사이에 수 차례 교섭이 있었던 것처럼, 고려와 대발해국간에도 교섭이 있었다. 고려 사신들이 고영창의 대발해국에서 겪었던 사건들은 다음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① 秘書校書郎 鄭良稷을 보내어 安北都護府의 아전이라 칭하고, 공문을 가지고 요나라 동경에 가서 節日使 尹彥純·進奉使 徐昉·賀正使 李德允 등이 오래 머무는 사실을 염탐하여 알아오게 하였다. 2월에 일본국에서 柑子를 바쳤다. 遼나라 동경 사람 高誥가 來附하였다(《高麗史節要》 권 8, 예종 11년 정월·2월).

② 鄭良稷이 요나라 동경으로부터 돌아왔다. 그 때에 동경의 渤海人이 난을 일으켜 留守 蕭保先을 죽이고 供奉官 高永昌을 세워 황제라 僭稱하고 나라 이름을 大元이라 하고 연호를 세워 隆基라 하였다. 그런데 良稷이 거기에 이르러 官銜을 詐稱하고 표문을 올려 臣이라 칭하고 국가가 東京留守에게 주는 토산물을 고영창에게 贈與하고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왔으나, 이것을 숨기고 알리지 않았다가 일이 발각되어, 有司가 그를 옥에 가두어 벌 줄 것을 청하니 그대로 하였다(《高麗史》 권 14, 世家 14, 예종 11년 3월 임인).

③ 尹彥純·徐昉·李德允 등이 요나라 동경에서 돌아왔다. 윤연순 등이 동경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고영창이 勅命하여 表文을 올려 그 건국을 稱賀하라 하니, 모든 것을 그의 말대로 하였는데 돌아와서는 숨기고 자수하지 않으니, 유사가 청하여 그 죄를 다스렸다(《高麗史節要》 권 8, 예종 11년 3월).

발해국 부흥운동 중에는 고영창의 대발해국보다 1년 전인 1115년에 일어났던 古欲의 부흥운동이 있었다.<sup>33)</sup> 고욕은 자칭 「大王」이라고만 했다고 전하고, 이들이 어떠한 국호나 연호를 썼는지는 모른다. 단지 고욕의 부흥 정권은 거란의 심장부인 시라무렌강 상류의 饒州에서 발해유민의 제철 기술자 1천 호를 포함한 호구 4천의 長樂縣과, 태종 때에 발해의 여러 고을 잡호로

33) 《遼史》 권 28, 本紀 28, 天祚帝 天慶 2월·4월·5월.

세운 安民縣의 발해유민을 배경으로 세워졌다는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고육 역시 그가 대왕을 칭한 지 5개월 만에 거란의 계략에 말려들어 사로잡힘으로써 부흥운동은 무산되고 말았다.

발해국의 부흥운동은 모두가 실패로 돌아갔다. 발해의 옛 지역이 거란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그들 자신이 발해국을 광복하겠다는 의식도 상당히 약화되어, 홍요국과 같이 단지 현실적 이해관계에서 발해의 부흥을 외쳐댈 뿐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85년이 지난 고영창의 부흥운동은 그 국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홍요국보다 매우 적극적이었다.

요컨대 발해국 부흥운동이 발해 멸망 후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복된 발해지역이 갖는 발해사적 의미를 확인해 주는 것이고, 발해 멸망 후 190년이 지난 시기까지 「발해」사람들이 거란으로부터 고려에 내투하도록 하지 않았는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발해와 신라가 갖고 있던 남북국의 역사·문화적 계승의식이 발해 멸망 후 200년 가까운 시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 그들이 단순히 고려가 인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발해 멸망 후 줄곧 고려를 그들의 망명처로 삼지는 않았음이 명백하다.

〈韓圭哲〉